

	보도자료	
2026. 8. 28.(금) 조간[온라인: 8. 27.(목) 15:00]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지역AX산업보안팀 서민석 팀장(전화:061-820-3850, 전자우편: msseo@kisa.or.kr) 지역AX산업보안팀 김지명 책임(전화:061-820-3853, 전자우편: jimyungkim@kisa.or.kr)	
참고자료	사진 있음 ☒ 사진 없음 ☐	총 2매

자동차 노리는 사이버 위협,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대응한다

-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 개발 교육·민관 합동 모의 훈련 등 협력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과 함께 자동차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체결했다고 2026. 8. 27.(목) 밝혔다.

최근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통신망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연결되며 자율주행차, 통신 연결 차량(커넥티드 카)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의 연결성과 편의성이 높아지는 만큼 사이버 위협이 국민 안전은 물론 자동차 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보호·디지털 분야 전문성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안전 분야 전문성을 결합해 자동차 사이버보안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련 ▲가이드 및 정책 개발 지원 ▲자동차 제작사·부품사 대상 교육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 모의 훈련 ▲기술협력 및 정보 공유 등에 협력한다.

특히, 양 기관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시행해, 사이버보안 사고 시 상황 전파, 기술 분석, 초동 조치, 복구 등 기관별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신속한 사고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해당 훈련에는 자동차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도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용필 디지털위협예방본부장은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차량 인프라 보안은 국민 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 및 산업계와의 정기적인 협의와 기술 교류를 통해 보안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박선영 자동차안전연구원장은 “자동차 사이버 보안은 미래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한국인터넷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해 자동차 사이버보안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